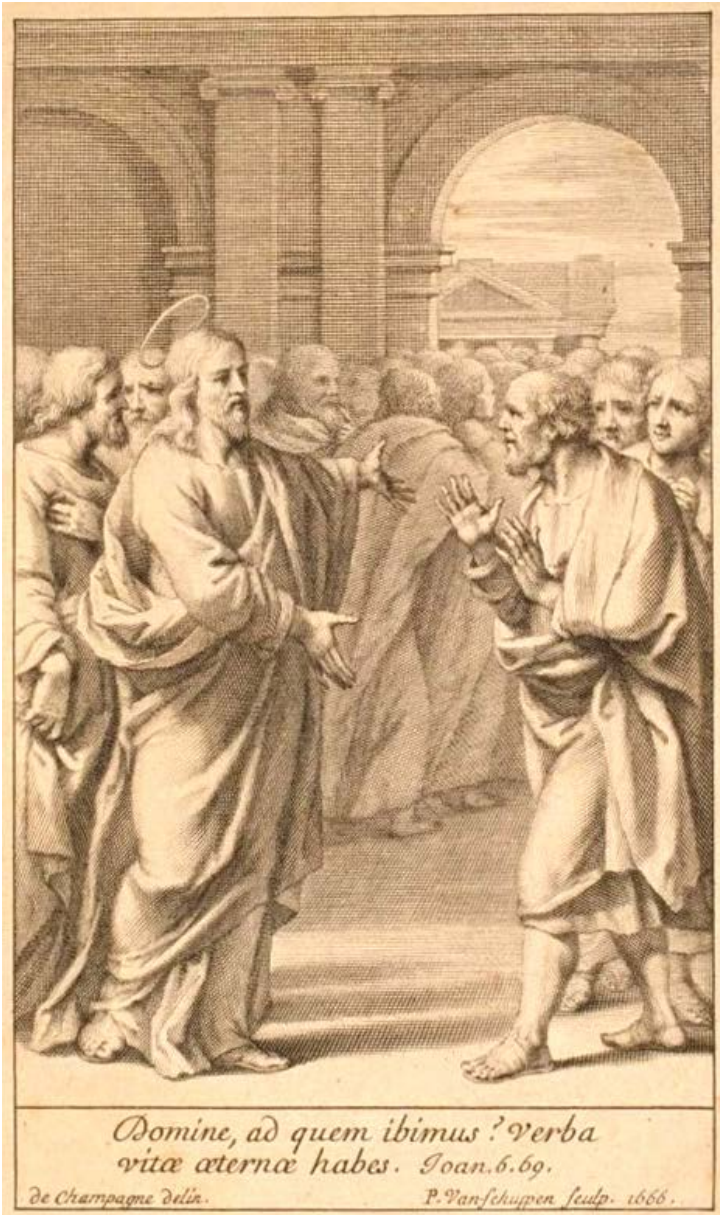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 6,6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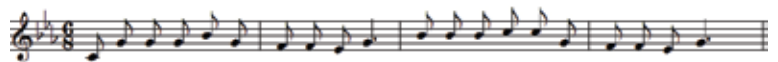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필리프 드 상파뉴, 1666년, 동판화

[제1독서]..... 여호 24,1-2ㄱ.15-17.18ㄴㄷ

[화답송] 시편 34(33),2-3.16-17.18-19.20-21.22-23
(◎ 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
-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
-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 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
-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짓밟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짓밟을 벗으리라. ◎

[제2독서]..... 에페 5,21-32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60ㄴ-69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61]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 봉헌성가: [220] 생활한 제물
 - 성체성가: [172] 그리스도의 영혼
[179] 주의 사랑 전하리
 - 파견성가: [400] 주님과 나는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⁶⁰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⁶¹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⁶²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⁶³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⁶⁴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⁶⁵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⁶⁶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⁶⁷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⁶⁸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⁶⁹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Many of Jesus' disciples who were listening said,

“This saying is hard; who can accept it?”

Since Jesus knew that his disciples were murmuring about this, he said to them, “Does this shock you?

What if you were to see the Son of Man ascending to where he was before?

It is the spirit that gives life, while the flesh is of no avail.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But there are some of you who do not believe.”

Jesus knew from the beginning the ones who would not believe and the one who would betray him. And he said,

“For this reason I have told you that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it is granted him by my Father.”

As a result of this, many of his disciples returned to their former way of life and no longer accompanied him.

Jesus then said to the Twelve, “Do you also want to leave?”

Simon Peter answered him, “Master,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We have come to believe

and are convinced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묵상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복음과 비슷한 상황이나 질문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과 진리,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기가 힘들 때, 미사에 참여하는 것에 싫증이 날 때,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충실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악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할 때, 의혹과 불신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떤 하느님을 따르거나 어떤 신을 경배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그분을 두고 떠납니까?

복음의 가르침이 딱딱하고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이 참아 낼 수 없을 듯할 때, “누가 이 모든 것을 생활 규범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단지 성인이나 어리석은 사람밖에 없고 나는 둘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우리는 갖가지 신들과 통치자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쾌락과 성, 교만과 이기주의, 허영과 아름다움, 번영과 소비주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생명의 말씀을 주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삶 안에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 주고, 만족시켜 주고, 실현해 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복잡한 가운데 개개인에게는 오늘날 자주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안팎으로 긴장에 눌려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분,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없이 저물지 않는 충만한 삶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다른 신들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필리프 드 샹파뉴(Philippe de Champaigne, 1602-1674)는 벨기에에서 태어나 루이 13세의 어머니 마리아 드 메디치(Marie de Médicis)와 추기경 리슐리외(Cardinal de Richelieu)의 후원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궁정화가이다. 그의 작품은 화려한 색채와 우아한 인물과 절제된 구성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는 1645년을 전후로 네덜란드의 가톨릭 신학자 얀세니우스(Cornelius Jansenius)의 엄격한 교리에 감화되면서 이전의 화려한 표현을 거부하고 좀 더 진지하고 사실적인 화풍으로 경건한 성화를 그렸다.

그가 1666년에 그린 동판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는 단순하지만 우아하게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예수님께서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오셨다. 카파르나움에서 빵의 기적을 일으킨 타브가까지는 육로로 약 3Km 떨어졌으니, 군중은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 온 것이다.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활과 밀접한 장소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불렀고, 시몬의 장모를 치유했으며,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소생시켰으며, 중풍병자와 고관의 아들을 치유하셨다.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가까운 곳에는 지금도 허물어진 회당 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 6,51) 하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요한 6,52) 하며 말다툼을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필리프 드 샹파뉴, 1666년, 동판화

벌이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요한 6,60) 하며 예수님을 떠난다. 이 작품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요한 6,67) 하고 물으시는 장면이다. 예수님은 왼손으로 떠나가는 제자들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을 가리킨다. 왼쪽은 죽음의 방향이고, 오른쪽은 생명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며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 6,68-69)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신다. 또 예수님께 머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기쁜 소식

- 마더 데레사 -

하느님은 항상 인간을 한계 상황으로 데려가십니다.

극단의 한계는 아무도 도망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란 하느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것,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 사라의 가슴처럼 메마르고 죽은 가슴도 생명을 낳을 수 있게 하시고 바다를 둘로 가르칠 수 있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느님입니다.

그분은 인도하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느님입니다.

그분은 당신 나라에서 영원히 저를 원하시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5분, 성서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 “마리아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상기시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모 승천 대축일 삼중기도 후 제노바에서 일어난 사고를 언급하면서 “성모님께서 당신 모성애적 전구로, 모든 성인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날까지, 실천하는 희망 안에서 우리 일상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성모님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오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에, 하느님의 충실하고 거룩한 백성들은 기쁨을 다해 성모님께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이는 전례와 여러 가지 신심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로써 성모님께서 하셨던 예언이 실현됩니다.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루카 1,48). 주님께서는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에 들어 올려진 것은, 예수님과과의 특별한 일치를 위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부여된 신성한 특권입니다. 이러한 일치는 예수님 탄생 예고에서부터 당신 아드님의 신비에 대한 특별한 참여를 통해 성모님의 전 생애에 걸쳐 성숙된 육체적이고 영적인 일치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항상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삶은 당대의 평범한 여인들의 삶과 같았습니다. 기도하고, 가족과 집을 돌보고, 회당에 다니고, (...) 그러나 성모님 일상의 모든 행동들은 언제나 예수님과과의 온전한 일치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일치는, 사랑과 연민과 마음의 고통 안에서, 그리고 골고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성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모님의 육신은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육신처럼 썩지 않고 보호됐습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이 신비를 묵상하라고 초대합니다. 이 신비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육신과 영혼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모님 승천의 놀라운 현실은 인간의 단일성을 드러내고 확증하며,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모성애적 전구로, 모든 성인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날까지, 실천하는 희망 안에서 우리 일상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성모님께 간구합니다. (https://www.vaticannews.va)



교황님의 9월 기도 지향

일반: 아프리카의 젊은이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교황, 이탈리아 젊은이들에게 “희망으로 고통과 탄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8월 11일 토요일 저녁 로마 원형 대경기장 치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에 모인 7만여 명의 이탈리아 젊은이 순례단을 맞았다. 교황은 순례단에게 “사랑, 신앙,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형제자매들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라”고 촉구했다.

건지 말고 달리십시오

교황은 인생의 신앙여정에서 느긋한 속도로는 부족하다며 “빠른 걸음과 대담한 도약”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황은 젊은이 순례단에게 “예수님처럼 하느님 나라를 꿈꾸고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황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좌절,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하느님께서 모든 불의와 인간적 나약함을 이겨낼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둠 속 희망의 불꽃

하느님께서 주신 바로 그 힘이 우리 형제자매들로 하여금 어떠한 어둠 속에 놓여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게 해준다고 교황은 덧붙였다.

교황은 “(겉으로는)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죽음의 패배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수님 부활의 권능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역사가 그 확산을 거스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생명이 억압받는 곳, 폭력과 전쟁과 고통이 지배하는 곳, 사람들이 모욕당하고 짓밟히는 곳 어디라도 삶의 희망은 여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https://www.vaticannews.va)

베드로회 소식

40대 가족 모임인 베드로회가 지난 19일(일)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베드로회원들과 가족들은 피자과 과일을 먹으면서 친교를 나누었고 점심식사 후에는 권미경 선생(아동 심리과)을 초빙하여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의 세 가지 유형과 장단점, 진단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베드로회는 두 부부 중 한 명이 40대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매달 셋째 주일 1시에 모임을 갖는다. (문의: 베드로회 회장 이준호 요셉 571-598-0327)

하상회 소식



하상회는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후 8월 월례회를 가졌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성경 말씀처럼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터득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 스텔라 수녀는 “긍정적이고 인정이 있는 마음가짐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며 “이런 믿음의 열매는 곧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라고 전했다.

회원들은 8월에 생일을 맞은 세 명의 형제들을 축하하고, 새로 가입한 회원들을 환영했다.

안나회 소식



안나회 월례회가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후 83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잘 산다는 것’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지만 나누어 쓰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며,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도시락 점심과 떡, 수박을 먹으며 친교 시간을 가졌다.



레지오 마리에 ‘애덕의 모후’ 1,000차 주 회합 기념



지난 15일(수) 성모승천대축일 오전 11시 미사 후 애덕의 모후(단장 국영주 발비나) 뵈레스디움은 1,000차 주 회합을 맞으며, 축하 기념떡과 생수를 전 신자들과 나누며 기쁨을 함께 했다.

이날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신부는 1,000차를 맞이하는 ‘애덕의 모후’ 뵈레스디움을 축하하며, 특별히 성모승천대축일에 나누게 되어 더 큰 기쁨이라며 일일이 떡과 생수를 나누어 주었다. 또한 이 스텔라, 정 아가다 수녀와 정 루시아 꼬미시움 단장도 함께 축하해 주었다.

‘애덕의 모후’ 뵈레스디움은 1999년 4월 21일에 창단되어 성체지킴이, 노인아파트 식사 배달, 양로원 방문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해왔으며, 현재 행동단원 8명, 협조단원 14명이 성모님의 군사로 열심히 활동 중이다.

Altar Servers, Youth Liturgy and Choir's Annual Trip to King's Dominion



On Saturday, August 18th, Altar Servers, Liturgy, and Choir went on our annual Kings Dominion trip as a thank you trip from the parish.

The students had a lot of fun riding rides such as Intimidator 305, Dominator, and Twisted Timbers. Fr. Bang accompanied the students and he also rode the Intimidator 305. Other students also went to the water park to cool off on a hot humid day.

St. Paul Chung Parish greatly appreciates all members of Liturgy, Choir, and Altar Servers in their continued service to their ministry. Thank you!

- Yong Woo Stephano Kwon



ANNOUNCEMENT

1. The First Day of Sunday School

• Sun., Sep. 9, 10am

2. Sunday School Registration

• Sun., Aug. 26, after 10 am Mass - 1 pm
(Registration is not available on Sun., Sep 2)

3. 2nd Semester of Confirmation Class

• The First Day of Class: Wed., Sep. 12, 7:45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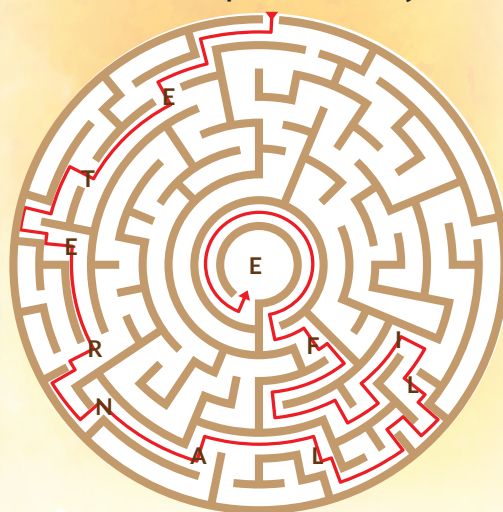
SEPTEMBER

9

20th Sunday in Ordinary Time
Maze & Fill in the blanks (Aug. 15, 2018)

Answer

Whoever feeds on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John 6:54)



1 제78차 새 신자 환영식

• 일시 : 8월 26일(일) 오전 11:30(B-1,2)

2 유아세례

• 일시 : 8월 26일(일) 오후 3시, 성당

3 장례절차에 대한 세미나(교육부/연령회)

• 일시 : 8월 26일(일) 오전 11:30(A-1,2)
• 대상 : 전 신자
• 내용 : 장례 절차와 연령회의 역할
• 강사 : 홍익훈 요셉 연령회장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4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 8월 26일(일) 오전 11:30(B-3)

5 하상 성인학교 강사회의

• 일시 : 8월 26일(일) 오전 11:30(A-3)

6 60대 교우 모임

• 일시 : 8월 26일(일) 오전 11:30(A-3)

7 제79차 예비신자 모집

• 접수 : 매 주일 8시, 10시 미사 후(선교부 테이블, 친교실)
• 입교식 : 9월 9일(일)
• 문의 : 사무실(703)968-3010
원철희 토마스 선교부장(703)203-0332

8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 첫영성체 받은 초등학생 4학년 - 6학년까지
• 신청 : 9월 16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권용우 스테파노(571)241-0333

9 2018년 하상 성인학교 가을학기

• 교육 기간 : 2018년 9월 4일 - 2018년 12월 2일
• 등록 : 2018년 9월 2일까지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수강 과목 : 컴퓨터(초,중,고급), 스마트폰, 키보드, 수채화, 동양화, 한국화, 스페인어, 문예창작, 생활영어(회화), 수지요법, 한창교실, 한국무용, 장구반, 기타(Guitar), 색소폰, 손뜨개 교실, 요가, 라인댄스
• 대상 : 전 신자와 일반인 20세 이상
• 등록금 : \$50(점심 제공)
• 문의 : 김명희 율리아나 교장 (703)217-2775

10 2018 - 2019년도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

• 학사 일정 : 2018년 9월 8일 - 2019년 5월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 등록 : 10시 미사 후 친교실 (8월 26일까지) 우편접수 가능(성당 웹사이트 참조)
• 문의 : 육옥영 교감 (703)598-5540

11 하상 한국학교 교사 보조/봉사자 모집

• 기간 : 2018년 9월 8일 - 2019년 5월 18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시)
• 봉사 시간에 따라 대통령 봉사상이 수여됩니다.

12 9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기도회(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일시 : 9월 1일(토) 오후 6:15, 성당
• 묵주기도와 묵상, 교황님께 바치는 기도 등 함께 봉헌드리는 자리에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김그라시아(571)243-5054

13 뉴저지 파티마 본부(The Shrine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일일 성지 순례

• 일시 : 10월 13일(토) 오전 5시 - 오후 10시
• 접수 : 친교실 테이블(선착순 50명)
• 참가비 : 1인당 \$70(식사 포함)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에서는 뉴저지의 파티마 성지로 일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자연 속에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과 함께 하는 은총의 자리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문의 : 김그라시아(571)243-5054

14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9월 2일(일) 오전 11:30(B-1,2)

15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9월 2일(일) 오후 1시(B-1)

16 청소년 사도회의

• 일시 : 9월 2일(일) 오후 1시(B-3)

17 주일학교 추가 등록

• 일시 : 8월 26일 (오전 10시 미사 후 - 오후 1시)
• 9월 2일은 등록받지 않습니다. • 개학: 2018년 9월 9일
• 견진반 2학기 개강: 2018년 9월 12일

8시, 10시 미사 미사곡 변경

자비송 : 320 / 대영광송 : 321
복음 환호송 : 366 / 거룩하시도다 : 322
주님의 기도 : 388 /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 389
하느님의 어린양 : 324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 21주간 : 2역대 20-25, 사도 7

KACM TV 하이라이트

8월 30일(목) 오후 5:00-6:00
8월 31일(금) 오후 8:00-9:00
9월 2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가톨릭 뉴스

• 임 따라 한 평생 : 은퇴한 후에도 불꽃같은 정열로 동정부부의 삶을 알리고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하는 전주교구 김환철 신부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8년 8월 19일(연중 제20주일)

주일헌금 \$ 7,544.00
교무금 \$ 14,515.00
교무금(크레딧카드) \$ 1,645.0
특별헌금 \$ 520.00
2차헌금 \$ 0.00
성모승전 대축일 미사 \$ 3,427.00
합계 \$ 27,651.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 신자 · 예비 신자를 위해 주차장을 양보합니다.
옛 IBM 파킹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셔틀버스 픽업 추가 및 시간표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오전 9시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가능
• 알렉산드리아 시니어 아파트와 애넌데일 시니어 아파트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정맹균(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파라델),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보(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신순영,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이나시오),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고필순(제마), 백명수(마리아),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승재(가비노), 장미애(아네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멜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진(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관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고미엘(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예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이나시오), 이효천(제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8월 26(일)	연중 제21주일	새신자 환영식(오전 11:30, B1-2), 장례절차 세미나(오전 11:30, A-1,2), 요한회월례회의(오전 11:30), 60대 교우 모임(오전 11:30, 나눔터), 유아세례(오후 3시, 성당), 하상성인학교 강사모임(오전 11:30, B-4)
27일(월)	성녀 모니카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28일(화)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평일미사(오후 7:30, 성당), 성령 기도회(오후 8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29일(수)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기념일	평일미사(오전 11시, 성당)
30일(목)	연중 제21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성당)
31일(금)	연중 제21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로고스 캠프(9월 3일까지)
9월 1일(토)	연중 제21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파티마 첫토요신심(오후 6:15, 성당)
9월 2일(일)	연중 제22주일	8시 미사 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구역 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청소년사도회의(오후 1시, B-3)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마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형)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현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철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웨딩사진 전문 Soowonlee.com 703-678-9215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세미나로 자세한 설명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인터넷 예약 가능 www.drjohnseok.com 카카오톡: neurocare 703-581-3719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마카엘) 703-881-1155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김응권 척추신경 교통사고/통증/디스크/재활치료 센터빌 703-815-2300	첼로 레슨 첼로 시작하는 어린이부터 전공생 입시레슨(성인 취미 레슨가능) Kim-Cello.com 703-472-3208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토요일 저녁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허전 (베네딕토)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